NO. 1

사상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가 3천만 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초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 이후 1월 4일 현재 전국적으로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는 3천 33만 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체 가금류 사육 규모(1억 6,525만 마리)의 18%를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 2014~2015년에 51 7일간 1,937만 마리가 도살 처분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신규 의심 신고가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 가까이 0~3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지난달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한창 퍼지던 시기에는 신고 건수가 10~14건에 달했으나 의심 신고가 점차 줄어들어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달걀 가격의 폭등과 공급 부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3일 국무회의에서 달걀과 달걀 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긴급할당관세 규정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 등 8개 품목 9만 8,000t을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이번 긴급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까지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생산기반에 타격을 입은 산란계(알 낳는 닭)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살아있는 병아리를 항공기로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브리핑하고 "달걀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1개에 270원대인데 현재 가격 수준으로는 당장 수입이 어려울 것 같다. 가격이 폭등해 300원까지 올랐을 경우 항공료 50%를 지원하면 수입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달걀 값 안정책은 국내산 달걀값을 진정시키는 근본대책이라기보다 300원대 이상으로 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못하게 묶어 놓으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